

2008.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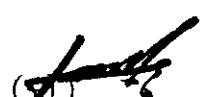
수 신 : 제천시의회의장

제 목 : 폴리텍IV대학 폐교 방침 철회를 위한 건의안

위의 건의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발의합니다.

별 첨 : 1. 의원서명서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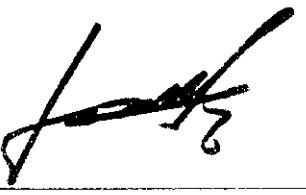
2. 폴리텍IV대학 폐교 방침 철회를 위한 건의안 1부.

발의자 : 김봉수 의원 

외 3인

(찬성자 서명 별첨)

폴리텍 IV대학 폐교 방침 철회를 위한 건의안
발 의 서 명 서

의원성명	서명 또는 날인	비고
김봉수		
조덕희		
김영선		
성예중		

폴리텍IV대학 폐교 방침 철회를 위한 건의안

의안 번호	1299
----------	------

발의연월일 : 2008. 11. .
발 의 자 : 김봉수의원외 3인

1. 주 문

- 낙후지역의 산업 인재양성을 위하여 제천시민 모두의 기대속에 설립된 폴리텍IV대학은 폐교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학교 운영을 활성화 하여야 한다.
- 우리 14만 제천시민은 2009년도 신입생을 계속 선발하고 철도 관련 학과 등 새로운 학과를 신설하는 등 설립 목적대로 학교를 지속 발전시켜 주기를 간곡히 건의합니다.

2. 제안이유

- 폴리텍IV대학 폐교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2009년 신입생 모집을 요함.
- 3년간 소외되었던 대학의 실습기자재 등을 확보하고 학교의 회생발전 할수 있는 대책방안의 수립 실천 요망
- 대학에 철도학과의 신설 등 국가 기능인력의 수요를 감안한 학과신설 및 개편과 우수한 교수확보 등 국가의 우수기능 인력을 양성 공급 하는 대학교로 존속 발전시켜 주시기를 바람.

폴리텍IV대학 폐교 방침 철회를 위한 건의안

존경하는 한승수 국무총리님!

국회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님!

이영희 노동부 장관님!

허병기 학교법인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님!

세계적인 금융 대란과 고유가, 환율급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속에 경제난국의 파고를 슬기롭게 해결하여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살고 세계 속에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14만 시민을 대표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천시는 중부내륙의 산업이 없는 도농복합도시로서 인구의 고령화와 농산물의 수입개방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와 시멘트산업의 쇠퇴로 인하여 지역경기는 침체되고 일자리가 없어서 인구는 계속 감소되고 있어 이를 극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역의 산업 인재양성을 위하여 1999년

기능대학을 설립할 시 당시 시민 모두는 큰 꿈과 기대감속에 지역인재양성과 대학의 지역기여에 대한 희망으로 열열이 환영하고 49,600m² 대학 부지를 기부체납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고 지금까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학교발전에 기여하고 왔습니다.

2005년 기능대학이 폴리텍IV대학으로 전환될 시 시민들은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적극 표시하였으며 향후 3년간 운영한 뒤 종합평가를 통한 폐교, 존치 및 기능전환 등 향후 진로 모색의 의견에 학교가 발전하기를 바라는 시민의 염원으로 2006년부터 매년 1억원씩 현재까지 시민의 세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제천시에서는 폴리텍IV대학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등 적극적인 대학의 존치대책을 강구중인 우리시는 대학의 일방적이고 잘못된 평가에 의하여 대안 없는 폐교 결정 소식을 접하고 우리 시의회는 물론 제천시민 모두가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14만 제천시민과 시의회의원 모두는 아래와 같이 폴리텍IV대학의 폐교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며 설립 목적대로 학교를 계속 운영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다음과 같이 건의 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 폴리텍IV대학 폐교의 결정을 즉각 취소하고 2009년 신입생 모집을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 3년간 소외되었던 대학의 실습기자재 등을 확보하고 학교의 학생발전 방안을 수립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 대학에 철도학과의 신설 등 국가 기능인력의 수요를 감안한 인기학과를 신설, 국가의 우수기능 인력을 양성 공급하는 대학교로 존속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승수 국무총리님!

국회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님!

이영희 노동부 장관님!

허병기 학교법인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님!

우리 제천시는 지역경제가 열악하고 어려우나 인재양성을 제일 소중히 여깁니다. 지금 폐교가 논의되고 있는 폴리텍 IV대학의 폐교가 필연코 철회되고 학교를 더욱 발전시켜 전국에서 제일 우수한 기능인력을 배출하는 대학교가 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견의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11. 14.

제천시의회의원 일동